

S#1 공원,낮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주안(남,25). 상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담배 한 모금을 들어 마시고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하늘로 향하고, 주안은 하늘을 쳐다본다. 나뭇가지들이 하늘에 서로 부딪히고 있다.

S#2거리,낮

주안은 아무도 없는 거리를 혼자 걷는다.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되어서야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고 들어간다.

S#3아파트 복도,밤

복도를 걸어 도착한 주안의 집 앞에 선물 상자와 쪽지 하나가 놓여있다.
주안은 상자를 들고,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간다.
현관문이 닫히고 주안의 집이 708호인 것을 보여준다.

S#4집,부엌/밤

주안은 부엌 테이블에 상자를 올려놓고 위에 있는 쪽지를 확인한다.

‘윗집에 새로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안은 상자를 열어본다. 하지만 안에는 또 다른 쪽지만이 있다.
다시 쪽지를 확인해 본다.

‘다음에 얼굴 보고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S#5 집,침실/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주안.
카메라는 천장을 보여주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S#6 집,부엌/아침

주안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초인종이 울리고, 주안은 현관문으로 향해 문을 연다.
창백한 피부와 얼굴에 멍이 가득한 미연(여,50)이 선물상자(S#3과 동일한)를 들고 활짝 웃으며 서 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주안은 상자를 받고는 집에 들어와 테이블 위에서 열어본다. 상자 안에는 빵이 하나가 있고, 주안은 조심스럽게 꺼내서 앉아 빵을 먹어본다.
점점 주안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빵 속을 확인해 보니 벌레가 가득하다. 주안은 깜짝 놀란다.

S#7 집,침실/밤

주안은 놀라며 잠에서 깨어난다.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주안은 침실에서 나와 소리가 들리는 부엌으로 향한다. 테이블에 앉아 흐느끼며 울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인다.

주안은 천천히 다가가서 여성의 어깨를 툭 건드리자, 미연이 활짝 웃는 얼굴로 돌아본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S#8 집,침실/아침

주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그러고는 이가 다 보일 정도로 활짝 웃는 표정을 짓고, 다시 정색하고를 반복한다.

S#9 집,침실/밤

쿵쿵 소리와 여성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침대 위에서 주안은 귀를 막으며 벌벌 떨며 괴로워한다.

cut to

어두운 방 안, 중간에 조그마한 식탁이 있고 위에는 지저분하게 놓여있는 음식들이 있다.
옆으로는 미연과 주훈(남,50)이 앉아 있고, 주안이 천천히 옆으로 와서 앉는다.
주훈은 오렌지를 추잡하게 먹으며 미연을 쳐다보면 웃는다.
미연은 공포에 떨며 울기 시작한다. 주안 또한 그 모습을 보고는 벌벌 떨기 시작한다.

S#10 집,침실/아침

침대는 텅 비어 있고, 노랗게 오줌을 싼 자국이 있다.
방 한쪽 구석에 주안이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다.
혼자 중얼거리고는 갑자기 사라진다.

S#11 집, 부엌/밤

의자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주안, 매우 초췌한 모습이다.
주안의 얼굴에 햇살 같은 밝은 빛이 들어온다. 그곳을 응시한다.

cut to

환한 대낮, 녹음이 가득한 곳에서 미연이 서서 주안을 응시하며 무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미연이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다가온다.

다시 부엌, 의자에 앉아 있는 주안에게로 미연이 와서 귓속말한다.
그러고는 칼을 주안의 손에 쥐여준다.
주안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걸어간다.

S#12 아파트 복도/밤

주안은 현관문을 열고 나와 계단 쪽으로 걸어간다.
주안은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윗집으로 향한다.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주안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닫힌 문에는 708호라고 적혀있다.

S#13 집/밤

현관문을 통해 들어온 주안, 부엌에서 주훈이 물을 마시고 있고, 주안은 다가가서 칼로 주훈을 찌른다. 칼에 찔린 주훈은 고꾸라지고, 주안은 다시 한번 칼로 내려찍는다. 얼굴에 피가 튄다. 옆의 탁상 위에는 미연, 주훈, 주안이 같이 찍은 가족사진이 있다. 주안은 지친 얼굴로 일어나, 부엌 냉장고를 열어본다. 벌레가 가득한 빵만 있을 뿐이다.